

<특별칼럼>
박정근교수의
미국스포츠여행

박정근 지음



머리말

호서대 교수로서 두 번째 안식년을 맞은 나는 아내, 막내딸과 함께 6개월 동안(2014.2.27.-8.15) 미국 스포츠여행을 했다. 메이저리그(MLB)를 중심으로 프로스포츠는 물론 대학스포츠, 아마추어와 생활스포츠, 스포츠시설, 스포츠산업의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미국 스포츠 현황을 꼼꼼히 살펴 보았다. 여행을 하면서 작성한 기사를 스포츠큐(www.sportsq.co.kr)에 40회 동안 연재를 했다.

초반 여행은 MLB 스프링캠프 여행과 휴스턴 근처지역 여행을 주로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텍사스주 휴스턴-에리조나주 글렌데일-텍사스주 샌안토니오-캘버스턴-오스틴대-달라스 지역을 여행했다.

두 번째 여행은 55일간 미국의 중부 및 동부, 캐나다지역을 여행하는 강행군이었다. 2014년 5월 23일 금요일, 드디어 여행을 시작했다. 집사람, 처형, 막내딸 여자 세 분을 모시고(?) 운전사 역할을 하며 약 두 달간 여행길에 올랐다.

나는 운전을 하고 집사람은 호텔예약 및 식사를 담당하고, 막내딸은 내비게이션 맡았으며, 처형은 집사람과 함께 식사를 담당했다. 환상의 콤비 4명이 오전 10시10분에 드디어 휴스턴을 출발했다. 55일간 일정은 아래와 같다.

휴스턴 출발-루이지애나주 뉴올리안즈-앨라배마주-플로리다주 탤리해시(FSU)-게인즈빌(UF)-올랜도(디즈니월드)-데이토나비치-세인트 오거스틴-잭슨빌-조지아주 사바나-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분홀-머틀비치-노스캐롤라이나주 월밍턴-버지니아주 체서피크-노퍽 타이저-워싱턴디시-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오리올즈-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뉴저지주 애틀란타시티-뉴욕주 뉴욕메츠 시티필드-코네티컷주 예일대-로드 아일랜드주 뉴포트-매사추세츠주 보스턴(레드삭스)-MIT-하버드대-캐나다 퀘벡-몬트리올-오타와-토론토(블루제이스 로저스센터)-나이가라폭포-미시간주 이스트 랜싱(MSU)-칼라마주(WMU)-일리노이 시카고-스프링필드(링크런생가)-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카디널스 부시 스타디움)-테네시주 멤피스(엘비스프레슬리 고향)-아칸소주 리틀록(빌클린턴 고향)-텍사스주 휴스턴.

55일간의 여행을 포함해 미국 안식년 6개월 동안 약 3만 마일 여정을 마쳤다. 휴스턴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미국 독립야구단 경기를 관전하면서 귀국 후 국내 독립야구단 창단에 대한 구상도 했다. 미국에서 6개월은 야구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만든 소중한 시간이었다.

부족한 글이나마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출판을 맡아주신 아이새롭 이형권 대표, 그리고 황형범 팀장, 유지웅 인턴, 김성권, 안연화 호서대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스포츠큐 류수근국장에게도 감사함을 전한다.

2016. 8. 호서대에서

황금알을 낳는 스포츠콤플렉스, 레이크 포인트 타운센터를 가다

호서대 교수로서 두 번째 안식년을 맞은 나는 6개월 동안 미국 스포츠여행을 시작했다. 메이저리그(MLB)를 중심으로 프로 스포츠는 물론 아마추어와 생활 스포츠, 스포츠산업의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미국 스포츠 현황을 꼼꼼히 살펴볼 참이다.

첫 번째 여행지는 애틀랜타에 위치한 레이크 포인트 스포팅 커뮤니티 & 타운센터(Lake Point Sporting Community & Town Center)였다.

나는 지난달 2월 27일 대한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떠나 가족과 함께 미국 애틀랜타로 향했다. 오전 9시 25분 도착 예정이었지만 예정시간보다 30여분 늦게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짐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세관신고서에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했다고 작성하는 탓에 대기실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여행자수표, 현금, 한국 돈은 얼마 소지하고 있느냐?" "왜 6개월 거주하느냐?" 등 꼬치꼬치 캐묻는 통에 수속을 밟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지체했다.

우리 가족은 12시가 넘어서야 힘겹게 공항을 빠져나와 마중 나온 한인회 부회장을 만날 수 있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나서 곧바로 레이크 포인트 스포팅 커뮤니티 & 타운센터로 향했다. 그곳은 공항에서 5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었다. 오후 1시 10분쯤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박정근교수의 미국스포츠여행

●—— 모든 종목이 총망라된 스포츠 콤플렉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레이크 포인트 타운을 실제로 가서 보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2015년에 완공 예정이란다. 캠퍼스 자체가 워낙 거대해 남쪽(south), 동쪽(east), 북쪽(north)의 3개 지역 캠퍼스로 나눌 정도라고 한다. 현장 담당자를 만나 세 캠퍼스를 모두 둘러보고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 최고경영자(CEO), 수석부사장들과 미팅을 하는데 1시간 20분 정도 걸렸다.

현재 레이크 포인트 타운센터에는 28개 야구장, 17개 축구 및 라크로스 겸용 구장, 다목적용 실내체육관이 건설 중이다. 야구장은 정규구장이 15개, 유소년 야구 및 소프트볼 겸용구장이 13개로 설계되어 있고, 실내체육관은 30개의 배구장과 농구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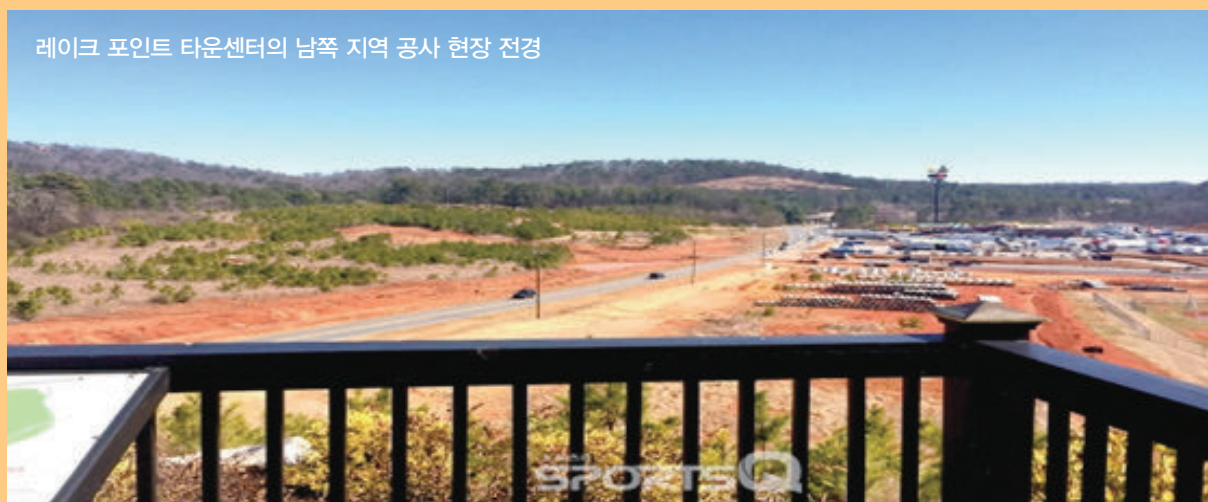
여기에 9홀짜리 골프 코스(파3)에다 하이킹 코스와 워터 파크, 29개의 호텔이 건설되고 있다. 프로경기를 치를 수 있는 야구와 축구 스타디움 등도 서서히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다.

오는 6월 남쪽 캠퍼스의 문을 맨 먼저 열고, 2015년까지 동쪽 캠퍼스와 북쪽 캠퍼스를 차례로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이 모두 완공되면 1년 중 10개월 이상 스포츠 경기가 펼쳐진다. 가장 중점을 둔 스포츠는 바로 야구이다. 그리고 축구와 라크로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레이크 포인트 타운센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유소년 선수들이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카데미를 통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린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했다. 우선 어드벤처 파트를 만들어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북쪽 캠퍼스에 있는 '페넌트 포인트'에서는 유소년과 주니어 팀들이 대학이나 프로팀에 선수를 보내기 위해 많은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뉴욕 양키스나 LA 다저스 등 메이저리그 감독이나 스카우트들은 이곳을 어린 유망주들이 찾는 기회의 장으로 삼을 것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활동이 중심이 될 '미러클 필드'도 생긴다. 관계자는 “미러클 필드를 북쪽 중심부에 만든 이유는 장애아동들이 ‘행운아’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 레이크 포인트가 가져다 줄 경제적 효과

레이크 포인트의 1단계 프로젝트 개발비용으로 3억2500만 달러(약 3486억원)가 투입됐다. 이중 1억 달러(약 1072억원)를 투자이민펀드로 충당한다.

레이크 포인트가 문을 열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계자는 1년에 약 400~500만 명이 이곳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380만 명은 숙박하는 방문객이고, 나머지는 일일 방문객으로 추정했다.

하루 묵는데 122달러(약 13만원) 정도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총 5억2600만 달러(약 5641억원)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탁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 건설에만 2683명이 투입돼 조지아주 북서지역에서 가장 큰 일자리 창출센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정근 교수가 레이크 포인트 스포팅 커뮤니티 & 타운센터 CFO로부터 공사 평면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박정근교수의 미국스포츠여행

이 프로젝트에는 바비 콕스 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단장 겸 감독을 비롯해 프레디 곤잘레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감독, 네드 요스트 캔자스시티 로열스 감독, 그렉 노먼 전 PGA투어프로 등 유명 선수출신들이 동참했다.

또한 코카콜라가 20년 스폰서십(음료 라이선스, 최초 코카콜라 스포츠안전실험실)을 체결했고, 퍼펙트게임 USA, LB3 라크로스, 북애틀랜타 축구협회, 농어 프로숍 등 100개 이상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논의하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미드타운 지역에 위치한 레이크 포인트 타운센터는 515만9741㎡의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총 29개 이상의 스포츠종목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의 아마추어·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다.

레이크 포인트 담당자는 “미국에서 스포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하다. 미국은 스포츠를 단순한 게임이 아닌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화를 구성하는 부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인구자료통계청에 따르면 예술, 연예, 그리고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산업이 그동안 2801만4500명의 일자리(전 미국인구의 약 8.9%)를 창출했고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연평균 149억 7800만 달러(약 16조590억원)이다.



우리는 유소년·대학생 및 지도자 연수, 전지훈련, 유학프로그램 등 레이크 포인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 로열스 감독인 네드 요스트의 사인볼을 기념으로 받았다.



박정근교수의 미국스포츠여행

팬들을 위한 혜택과 이벤트로 가득한 마이너구단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트리플 A팀 그윈네트 브레이브스를 가다

미국 도착 이틀째, 지난달 2월 28일 오전 10시 애틀랜타 도심을 구경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우연히 야구장이 눈에 들어왔다.



시즌을 앞둔 그윈네트 브레이브스 홈 경기장은 팬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이 스포츠에 모든 관심이 쏠린 나는 야구장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 곳은 미국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트리플 A팀인 그윈네트 브레이브스의 홈구장인 쿨레이 필드였다.

쿨레이 필드는 어떻게 생겼고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 무작정 구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프런트 직원에게 한국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시설 구경과 마이너리그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더니 친절하게 안내해줬다. 마이너리그 구장이지만 시설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쿨레이 필드의 직원은 야구장 시설을 포함해 라디오 중계석, TV 중계석(카메라 8대가 설치됐다) 등을 직접 안내해줬다. 또한 선수 라커룸, 타격연습실, 투수연습실, 다이닝룸 등 선수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특별단체 관람석, 기념품 매점, 카페테리아 등도 인상적이었다.

그윈네트 브레이브스 구단은 마케팅 차원에서 다양한 이벤트 및 특별 단체 관람석을 홍보하면서 판매하고 있었다. 그중 제일 규모가 큰 특별 단체 관람석은 100명의 회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 각양각색 시즌권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그윈네트 브레이브스는 팬들이 원하는 경기를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즌권을 판매하고 있었다. 시즌권은 풀시즌을 포함해 하프시즌, 주말 패키지, 18게임 플랜 등으로 구성됐고 개인 티켓과 단체 티켓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프런트 직원은 설명했다.

GROUP TICKET OPTIONS

SEATING AREA	GROUPS 20-199 TICKETS	GROUPS 200+ TICKETS
Infield Box Seats	\$12	\$11
Field Box Seats	\$8	\$7
Baseline Box Seats	\$6	\$5
GA Lawn	\$4	\$4
First Base Party Deck	\$20	N/A
Third Base Party Deck	\$20	N/A

Do you have a ticket or group related question?
Let our helpful Ticket Office staff help you.
We are here Monday thru Friday 10 am - 5pm
678-277-0340

그윈네트 브레이브스 구단은 다양한 시즌권을 개발해 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www.isgkorea.com

풀시즌권은 홈 72경기를 모두 관람할 수 있고 특별혜택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프 시즌권은 전체 경기 중 가장 인기 있는 36경기를 선택해 즐길 수 있고 주말 패키지는 금요일과 토요일 홈경기 중 23경기를 선택해 관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날짜에 맞춰 관전할 수 있는 18게임 플랜은 총 4가지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금요일 10회와 화요일 8회 경기로 구성해 관람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토요일 13회와 수요일 5회로 구성됐다. 세 번째는 일요일 경기 12회와 목요일 경기 6회를 관람할 수 있고 18번의 평일 경기를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관람하는 방법도 있다.

시즌 티켓의 혜택은 모든 홈경기에서 원하는 좌석을 선택할 수 있고 티켓 교환 프로그램, 주차비 및 기념품 가게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정근 교수의 미국 스포츠 여행

또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경기 예매 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폴 시즌 티켓 구매자는 본인 지정석 제공 및 사인회 참가, 모든 게임에서 우선 입장 가능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 남여노소 누구나 만족하게 할 이벤트로 가득하다

그윈네트 브레이브스 구단은 마이너구단이지만 많은 인기를 얻는 데는 이벤트로 가득한 마케팅 전략이 한몫했다. 특히 남여노소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우선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다. 그중 12세 이하 아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초퍼(Chopper) 어린이 클럽은 멤버십 카드 제공을 비롯해 야구 팬 사인회 참가, 그윈네트 브레이브스 일요일 홈경기 1인 무료 티켓을 제공한다.

또한 매주 일요일 홈경기에 펼쳐지는 어린이 베이스 달리기 이벤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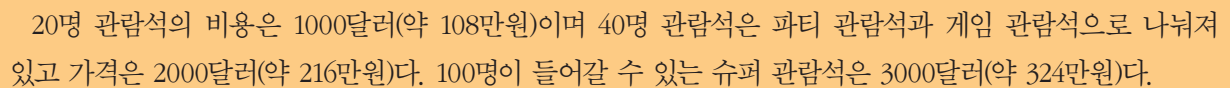
그윈네트 브레이브스의 경기를 중계하는 라디오 방송실

성인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다. 보드 룸에서부터 특별관람석(Party Suite)까지 다양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쿼레이 필드 이벤트는 프로선수처럼 배팅 연습을 하거나 직장 소프트볼 게임까지 할 수 있고 저녁 식사를 즐기면서 야구도 관람할 수 있다.

35명의 회원이 한 팀을 이뤄 참가할 수 있는 ‘Team of the night’ 이벤트는 단체 관람 좌석 제공은 물론 경

●—— 관람석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또한 라운지 바가 실내외에 배치돼 원하는 곳에서 쉽게 즐길 수 있다. 주차권 제공 및 음식 선택이 가능하며 인원수에 따라 4가지 타입의 특별관람석을 선택할 수 있다.





지은이 박정근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체육행정학 석사, 스포츠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호서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체육 전공 교수, 스포츠과학대학원 축구학과와 야구학과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교외활동으로는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 원장, (주)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 CEO, (사)KBO 야구발전위원, 독립야구단 연천미라클 구단주,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소년스포츠지도사연수원 원장을 맡고 있다.